

# 李箱의 『지주회시』와 翁鬧의 『殘雪』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과 극복: 시이멘, 프롬의 이론을 중심으로

張秀蓉(장수용)\*

---

**Chang, Hsiu-Yung. A Comparative Study of Alienation Shown between Lee Sang's The Spider meets the Pig(지주회시) and Weng Nao's Remnant Snow(殘雪)- Centering around Theories in Melvin Seeman and Erich Fromm.** Lee Sang and Weng Nao were well-known as 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writer of the 1930's in the Korean and the Taiwan novel history. Particularly, Lee Sang and Weng Nao two writers have commons who first concerns about the subject of the alienation on their novels respectively in each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tudy these two writers from the viewpoint of alienation. In chapter II, it has studied the cause of alienation from relation of character and literary reality and the character's will that escape from alienated state, through pursuit of literary space through 「The Spider meets the Pig(지주회시)」 of Lee Sang and 「Remnant Snow(殘雪)」 of Weng Nao. In chapter III,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re compared in the character's practical way to escape from alienated state through his consideration process. In chapter IV, there suggests main findings in this study.

---

**Keywords: Lee Sang, Weng Nao, Alienation, Colonial, 1930's Writers**

---

## 1. 들어가며

이 논문의 목적은 1930년대 한국과 대만의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 받는 李箱과 翁鬧의 소설에서 구현된 소외의 양상이 두 작품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근대 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소외의 개념은 다양한 철학적 논의를 거쳐 두드러지게 나타난 개념으로, 서구의 근대 사회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17세기 이래 18세기 말에 이르는 시민혁명을 통하여 성립되었

---

\*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나. 소외의 개념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전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면서, 특히 지식분자들이 겪고 있는 소외 상황은 문학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한국 문학에서 인간 소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30 년대의 李箱으로부터이다. 같은 시기 대만에서는 翁鬧에 의해 소외의 개념이 포착되면서, 소외는 대만 근대 소설의 중요한 주제로 창작되었다.

李箱의 「지주회시(1936.6)」는 30 년대 일제 강점기 사회체제에 편입하지 못한 틈새 지식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자아 인식 없이 오늘을 무력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물을 구현한다. 불질적인 욕망의 상징인 돈과 출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한편 허부감과 공허를 표출하면서 허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심리를 토로하고 있다. 李箱은 현실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단지 허전함, 긴장감, 그리고 공포를 느끼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의 심층적인 내면까지 포착하며 현실의 환경에서 오는 혼란 속에서 억압된 욕망에 방황하며 고통을 받은 인물들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을 형상화하였다.

翁鬧의 「殘雪(1935.8)」은 1930 년대 같은 식민지 시기 일본 동경에서 현실의 모순 속에서 고뇌하는 대만 유학생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근대 동양문화권의 중심인 일본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는 익숙하나, 자신이 출생 성장하고, 몸과 마음을 바치려 하는 고향 臺灣의 문화 사이에서 생겨나는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인물을 그려냈다. 당시 臺灣 유학생은 신분적인 모순으로 인한 이상과 현실, 자아와 전통에 대하여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등의 심리적 갈등을 느끼며 현실로부터 단절된다. 翁鬧는 「잔설(殘雪)」에서 이러한 자아 정체성의 혼란으로 소외된 인물의 갈등을 형상화하였다.

한국의 李箱과 대만의 翁關 두 작가는 1930년대 같은 시대의 두 사회를 대변하는 작가로서 소외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과 대만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두 작가의 작품에서 형상화된 소외에 관한 비교 연구가 두 작가의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 아쉽다. 이에 본 논문은 작품 내에 구현되어 있는 작중 현실에 집중하고, 두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소외의 특징을 프롤의 소외 개념과 시이맨의 소외 양상을 참고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李箱 소설의 소외의 특징인 사회와의 단절을 「지주회시」를 통하여, 翁關의 가치상의 혼란/정체성의 혼란을 「잔설(殘雪)」을 통하여 대조비교해 봄과 동시에, 관련 소외의 양상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소외의 이론적 배경

근대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인간은 총제적인 공동체의 연대관계로부터 분리되어 개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나, 개인과 사회라는 이원적 구조 아래 인간 소외라는 새로운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소외에 관한 논의는 철학적 입장, 실존주의적 입장, 심리주의적 입장, 사회주의적 입장 등 다양한 입장에서 언급되고 있다. 철학적인 관심은 부소의 문명 발전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하여 사회와 인간간의 모순을 격화시킨다는 비판으로 시작하였고, 헤겔이 소외를 인간 모든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과 연결시켜 해석함으로써 소외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후 경제학적으로 마르크스는 인간과 상품의 관계의 전도에서 비롯된 노동자의 궁핍화와 상품화라는 사실을 소외로 여기며, 이와 같은 소외를 다음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번째 형태는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노동자의 소외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서 단지 도구로 존재하는 것을 뜻

함으로서, 노동이 생산하는 대상, 즉 노동의 생산물에는 생활수단으로서 예속되어 현실로부터 박탈되어 하나의 소원한 존재로서, 노동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는 노동을 현실적인 경제 생활수단으로서의 생산물이나 노동소재 같은 대상물이 없으면 활동할 수가 없으며, 그 대상은 자본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된다고 보는 것이다.

두번째 형태는 생산 활동, 즉 그 노동(생산과정) 자체로부터의 노동자의 소외이다. 노동이 노동자에게 있어서 생존의 수단이 될 때, 임금을 벌려고 노동을 하는 경우, 노동이 자발적인 것이기보다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어, 그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의해 예속되어 소외되는 것이다.

세번째 형태는 유적 존재(類的存在)로 부터의 인간의 소외이다. 인간은 의식적인 생명 활동을 하며 자기의식을 가진 유적 존재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생명의 활동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임금을 버는 활동으로 전락되어 비리는 것이다. 즉 인간적 본질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네번째 형태는 인간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를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소외된 노동의 세형태는 단지 노동자의 측면에서 다른 데 대해 여기서는 노동과는 다른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곧 인간 상호간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간 상호간의 대립이 아니라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도가 소외의 원천이고, 재산이 없는 민중의 실업과 빈곤은 또 다른 인간의 자기소외이라고 한다. 소원한 존재, 나와는 다른 존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sup>1)</sup>

1) 정문길, 『疎外論研究』, 문학과 지성사, 1978., 69-83쪽.

## 가. 시이맨의 소외 양상

이와 같이 경제학적으로 마르크스의 인간과 상품의 관계의 전도에서 비롯된 소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발전시켜 시이맨은 사회학적으로 소외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하였다. 시이맨의 경우 소외를 행위자의 개인적 입장에서 소외의 양상을 다음 6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그 자신의 행위가 개인적 사회적 보상이 생기도록 통제할 수 있는 데 대한 낮은 기대감이라고 하는 ‘무력감’이다.

둘째는 인간이 장래의 결과에 대한 만족할 만한 예측이 내려질 수 있다는 데 대한 낮은 기대감이라고 하는 ‘무의미성’이다.

셋째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단이 필요한데 대한 높은 기대감이라는 ‘무규범성’이다.

넷째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집단의 기준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한 공동체의식을 상실해 버린 가운데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가치상의 고립’을 말한다.

다섯째는 소외의 주체가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 소외된 인격이나 자아로부터의 분리의 경우에는 기본적 단위로서의 개인이 분화되는 것이라는 ‘자기소원’이다. 주체는 그 스스로를 이방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고독감이나 거부 및 거절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포용이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이다.<sup>2</sup>

## 나. 프롬의 소외 개념

<sup>2</sup> 정문길, 위의 책, 198-230 쪽.

이렇듯 소외의 개념은 루소에서 헤겔로부터 시작하여, 마르크스를 거쳐, 프롬에 와서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논의 되었다. 특히 프롬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疏外란 인간이 그 자신을 異質의인 존재로서 경험하는 經驗의 한 類型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들 인간이 그 자신으로부터 疏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의 世界의 中心으로서, 그의 行為의 創造者로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의 행위와 그 결과가 그가 복종하고 심지어는 숭배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의 주인이 되어 버렸다. 소외된 인간은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듯이 그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事務이 경험되듯이 경험된다. 그는 知覺과 常識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그 자신이나 외부 세계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관련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sup>3</sup>

이와 같이 소외의 개념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과 사회 전반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철학적 입장과 사회학적 입장을 포괄적으로 조망한 것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프롬의 소외 개념과 시이벤의 소외 양상을 통하여 두 작가의 소설 속에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 3. 작품 속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

李箱과 翁鬧의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은 ①가치상의 혼란으로 인해 소외된 경우와, ②자기의 소원으로 인해 고립된 경우, ③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 등 그 양상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李箱의 「지주희시」와 翁鬧의 「잔설(殘雪)」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사회와의 고립 및 가치상의 고립 등, 소외의 특징을 중심으로,

<sup>3</sup> 장문식, 위의 책, 178-195 쪽.

그 소외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작품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가. 「지주회시」에 나타난 사회와의 단절에 의한 소외

李箱의 「지주회시」는 식민화 사회체제의 모순에 의해 카페 여급인 아내에게 기식하면서 내일 없이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실직자 남편의 삶을 그렸다. 주인공은 현실 사회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채 사회와 단절되어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식 없이 오늘 오늘을 무의미하고 무력하게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소외된 인간이다. 「지주회시」의 주인공인 ‘나’의 일상은 오후 네 시로 옮겨 얹은 그의 아침에서부터 시작된다.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공간은 쿼케썩만한 방이다. 그는 언제부터 고립된 고독한 개인이 되었는지 도부시 기억에 없다. 그와 그의 아내는 식물처럼 조용하다. 그들 부부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아내에게 ‘나’는 평소 잠만 자는 남편이어서 깨어 있는 주인공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내에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주는 낯설며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다. ‘나’는 다만 방안에서만 활발하게 발광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생활을 완전히 단아버린 인간으로 이미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거미와 같이 아내의 피를 빨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외된 인간인 것이다.

어느날 ‘나’는 봄과 같은 따뜻한 크리스마스 날에 아내의 수염을 깎으라는 권유로 집을 나섰지만 두꺼운 벽의 빌딩들 앞에서 불안과 공포만 을 느낀다. 바쁘게 움직이는 긴장된 일상세계가 건딜 수 없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땅은힘이돌고두꺼운벽이더덕더덕불은빌딩들을쳐다보는것은보는것만으로도너  
 녀히숨이차다. (중략) 저렇게바쁘게씨곤거리는 사람 무거운통 짐 구두 사냥개

야단치는소리 안열린들참 모든것이 견딜수없이답답하다. 숨이막힌다.<sup>4</sup>

여기서 두꺼운 벽의 빌딩들은 강제적 식민화에 발전된 도시를 상징한다. 주인공 ‘나’를 숨이 차, 모든 것이 견딜수 없이 답답하게 만든다. ‘나’는 자신이 언제부터 어떻게 ‘일상세계’를 상실한지도 모르는 채 어느새 소외된 인간이 된 것이다. ‘나’는 사회적인 압박감에서 오는 불안과 초조로 충만해 한다. 고층 빌딩인 도시 생활 공간은 李箱 소설의 단골 주제이다. 그의 소설에서 ‘빌딩’이란 신식 ‘건물’은 단순 장소가 아닌 창작의 소재 혹은 현실 사회를 반영하는 은유적인 대상이다. 낮은 1, 2 층 건물로 인간관계의 친화와 화합을 내포하고 있는 전통적 주거 공간과 대조되며 ‘나’가 소외된 현실 사회인 것이다.

즉, 근대 도시 생활의 공간인 4, 5 층 고층빌딩은 인간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변화시켰다. 전통적인 건물은 평면적인 반면에, 근대 고층 건물은 내가 밑에서 우러러 보거나, 위에서 나를 내려다 보고 있다. 건물과 나라는 인간이 대비되며 건물의 웅장함 앞에서 나의 약소함이 더욱 노출되면서, 자신의 미약함을 느끼게 된다. 현실 사회에서 이미 인간은 공간을 더 이상 장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장악감의 상실로 인해 인간은 불안과 초조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작품 속의 두꺼운 벽의 빌딩들을 쳐다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찬 것이다. 도시의 고층 빌딩은 아무런 친근감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마치 자신이 잡아 먹힐 것 같은 공포감이 충만한 곳이다. 이러한 모순된 근대 도시 생활로 상징되는 사회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나는 인간관계의 유대를 상실하며 고립되고 소외를 느끼게 됨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친구 A 취인점의 ‘윗군’은 이러한 사회체제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 가고 있다. 작품에서 두 사람은 현실에 대한 태도의 차

<sup>4</sup> 김유식 편(1991), 『李箱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299 쪽.



이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윗군’에 대한 ‘나’의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한다.

전될수없이담담하다.숨이막힌다.어디로가볼까.(A取引店)(생각나는명함)(윗군)  
(자랑마라)(중략)취민점담벼락을뽕뽕싸고돌다가미속에무엇이있나.공기?사나운  
공기리라.살을저미는-과연보통공기가아니었다.눈에핏줄-새빨강게달은전-  
그의허섭수룩한몸은금시에타죽을것같았다.<sup>5</sup>

작품에서는 ‘살을저미는’, ‘눈에핏줄’, ‘새빨강게달은전화’, ‘타죽을것 같았다’ 등의 강렬한 어휘를 통해 ‘윗군’을 사회체제에 편입한 매서운 현실적인 인물임으로 표현해 나타내고 있다.

뺨은완전히뺨자신을활활열어찢혀놓은모양이었다. 흠사그가뺨앞에서나세상앞  
에 서나그자신을침침이닫고있듯이. (중략)크리스마스트리결에서촉음기가깨끗  
이울렸다. 두루마기처럼기다란털외 투----- 기름바른머리-----금시제  
-----보석박힌넥타이핀-----이런모든뺨의차림차림이한없이그의눈에거슬렀  
다.어찌다가저지경이되었을까. 아니내야말로어찌다가 이모양이되었을까. (돈  
이있다)사람을죽였단다. 다털어먹은후에는볼품종제여비를주어서쫓는것이었  
다.<sup>6</sup>

동시 위의 예문을 통해 주인공 ‘나’는 자신과 ‘윗군’간의 차이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정문진(1978)에서는, “사회적 가치로부터의 거부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 같은 가치상의 고립이라는 소외감을 갖는 자들은 새로운 사회 구조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반항아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sup>7</sup>

가치상의 고립으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sup>5</sup> 김윤식 편(1991), 앞의 책, 299-300 쪽.

<sup>6</sup> 김윤식 편(1991), 위의 책, 300-301 쪽.

<sup>7</sup> 정문진, 앞의 책, 225 쪽.

통용되는 가치에 대한 개인의 거부를 말한다. 따라서 이런 가치상의 고립은 사회적 성공이나 유형을 거부하는 소외된 예술가 및 지식인들에게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중문화에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TV 를 즐기느냐?” 라는 등의 담화 질문을 통해 대중문화에 탐닉하는 자들을 오히려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sup>8</sup>

두루마기처럼기다란털외투-기름바른머리-금시계-보석박힌타이핀이런모든것  
의차림이한없이 그의눈에게슬렸다. 어쩌다가저자정이되었을까. 아니내야말로  
어쩌다가이모 양이되었을까.(돈이었다)사람을숙였다. 다털어먹은후에는불꽃  
종계여비를죽여서쫓는 것이었다. (중략) 다만모든이런것의저속한큰소리가앵탕  
거짓말같이하였으나또아니부러 워할려야아니부러워할수없는형언안되는것이확  
실히있는것도같았다.<sup>9</sup>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주인공 ‘나’는 세속적이고 거짓말쟁이인 ‘룻군’이 한편으로는 혐오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룻군’이 부러운 것이다. 여기서 ‘나’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가치 중심인 현실 사회체제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인 ‘돈’에 대한 모순에 갈등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부의 축적이나 금전적 성공이라는 사회의 가치 판단에 대한 거부로 ‘나’는 가치상의 고립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나. 「잔설(殘雪)」에 나타난 가치상의 고립으로 인한 소외

翁關의 「잔설(殘雪)」은 1930년대 당시 臺灣에서 일본으로 유학한 식

<sup>8</sup> 정문길, 위의 책, 223-224 쪽.

<sup>9</sup> 김윤식 편(1991), 앞의 책, 302 쪽.

민지 유학생의 신분적 모순으로 인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여 고뇌하는 인물을 그린 작품이다. 「殘雪」은 臺灣에서 동경으로 유학을 간 주인공 林春生과 臺灣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옛연인 陳玉枝 그리고 일본에서 만난 여인 喜美子간의 미묘하고 모순적인 감정과 관계를 통해 주인공 林春生の 양면적인<sup>10</sup> 정체성의 갈등을 그려냈다. 당시 臺灣 지식분자로 제일 유학생은 근대문화권의 중심인 일본에의 유학을 통해서 오히려 신식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익숙하나, 자신 내부에 잠재해 있는, 출생 성장지이자 장래 그곳에 몸과 마음을 바치려 하는 고향과 조국 臺灣의 문화 사이에 생겨나는 내부적 갈등이 심각한 인물이다. 「잔설(殘雪)」에서 주인공은 제 1 차적 연대관계인 臺灣의 고향으로부터의 분리되어 동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회의와 소외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소외의 양상은 프롬의 도파 베커니즘을 통해 그 원천을 살펴볼 수 있다. 프롬은, “인간이 자아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일차적인 연대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개별화를 촉진하며, 외부적인 속박으로부터는 해방되었으나 일차적인 유대의 상실에 의해 그 자신의 정체성에

<sup>10</sup> 翁鬧가 「잔설(殘雪)」에서 보여 준 30년대 당시 일본으로 유학 간 臺灣 유학생 주인공 林春生の 신분의 兩棲적 특징적인 예를 스페인어 낯은 금세기 최고의 사상이 중의 한 사람인 호세 오르테가 이가세트에게서도 잇볼 수 있다. 오르테가는 1883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898년 마드리드 대학에 입학한 후 1904년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스페인 정부의 장학생으로서 독일의 라지프쾨히, 베를린 대학을 거쳐 마르부르크대학에서 2년간 유학을 했다. 20세기 초 스페인은 서구문화권의 변경이었다. 오르테가는 스스로 서구문화권의 중심인 독일에의 유학을 통해서 중심의 문화적 가치와 여러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서툰지 않으나, 그 자신이 출생 성장한, 그리고 그곳에 몸과 마음을 바치려 하는 서구문화권의 변경인 스페인의 문화가 내재해 있기에 여기서 생겨나는 내부적 갈등은 심각한 것이라 하겠다.

대해 깊은 의혹과 회의를 품게 됨으로써 고독에 빠지게 된다“라고 지적하였다.<sup>11</sup>

주인공 林春生은 자신의 고향인 대만에서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원래의 사회와 가족 및 연인과의 기존 유대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林春生은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의 바람으로 동경에 건너가 법학과를 지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유학을 결심한 주된 원인은 자신과 열애 중이었던 고향의 옛연인 양녀 陳玉枝와의 관계를 끊게 하려는 부모의 목적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林春生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동경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법학과의 선택은 자신이 지향한 바가 아니었다. 林春生은 일 년전부터 동경에 있는 모 유명 극단의 임시 배우로 몸 담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고향의 부모는 그의 생활비를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다.

進入十二月，寒冷的日子接連不斷。由於戲曲的排演，尤其是生活上的窮困，他最近實在非常煩惱。他的故鄉在台灣南部鄉下，雖然業農，卻夠得上是中產階級家庭。到東京後，最初兩年就讀於丁大學法科，每月家裡送來相當可觀的生活費。可是，家裡知道他開始演戲的時候，便不再資助了。<sup>12</sup>

12월에 접어들면서, 차가운 날은 끊이지 않았다. 연극의 리허설 때문에, 특히 생활이 궁핍하여, 그는 최근에 괴로움에 많이 시달렸다. 그의 고향은 臺灣의 남부 시골이었다. 비록 농업에 종사하나, 중산계급의 가정이었다. 동경에 온 후, 2년간은 T 대학의 법학과를 다녔다. 집에서 매일 상당한 생활비를 부쳐왔다. 그러나, 집에서 그가 연극을 시작하는 것을 알게된 후, 생활비를 더는 부치지 않았다.

林春生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치하면서 많은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러한 고향과의 단절 그리고 동경에서의 생활 궁핍으로 인하여 문제가 심화되면서 생긴 깊은 소외감은 그를

<sup>11</sup> 정문진, 앞의 책, 158-167 쪽.

<sup>12</sup> 翁鬧著(1990), 張恆豪編 앞의 책, 123 쪽.

절망의 비랑 끝으로 몰아 넣는다.

往前跨上一步往往就是無底漆黑的深淵。(中略) 猛然環顧四週, 才發現已走到不認識的懸涯邊緣, 再跨進一步就是意想不到了地方了, 這才使他驚訝不已, 他不知道自己曾試過幾次。<sup>13</sup>

한발자욱만 더 나가면 바로 앞이 안보이는 칠흙의 깊은 계곡이었다. (중략)  
이미 알지 못하는 비랑 끝에 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한발작만 더 나가면  
상상도 못할 것임을 그때서야 그는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몇 번이나 시도해  
본지 모른다.

이런 처境的 林春生은 유대 관계로부터의 분리로 인한 절망 속에 휘싸여 자신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같은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유를 갈구한다. 그러다가 지발성과 개인성을 확보하여 고독과 소외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던 林春生에게 北海道에서 꿈을 찾고자 동경에 온 아름다운 마모의 일본 여자 喜美子를 만나고서부터 그 계기가 주이지게 된다.

“我昨天才第一次從北海道到東京, 對東京的事情一竅不通。”-她說到東京這兩個字, 語氣這麼強烈.

“真的, 你很喜歡東京?”

“嗯, 從很久很久以前, 我就像往東京, 但是, 我爸爸總不讓我來。”<sup>14</sup>

“저는 어케 처음으로 北海道에서 동경에 왔어요, 동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동경 두 글자에 아주 힘을 주며 얘기 했다.

정말, 당신은 동경이 좋습니까?

네,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 저는 동경을 늘 오고 싶어했어요.

정문길(1999)에서는 인간은 1 차적 유대 관계의 상실함으로써 주는

<sup>13</sup> 翁鬧著(1990), 張恆豪編, 위의 책, 123 쪽.

<sup>14</sup> 翁鬧著(1990), 張恆豪編, 위의 책, 115 쪽.

공포에 휩싸여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자기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에 복종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5</sup> 林春生은 자신의 동경에 대한 융합을 통하여 자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林春生은 이러한 자신의 喜美子에 대한 애정이 진실인지, 즉, 진정으로 자신의 정직한 마음인지 동시 의혹을 품게 된다. 왜냐하면 林春生에게 喜美子는 유럽 신화에 나타나는 자신과는 거리가 아주 먼 환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一片廣闊的原野。你穿著純白的衣服在那一邊，我一邊呼叫，一邊向你追去。”

(中略)

“真搞不懂，簡直像北歐神話落實到地面上一樣。不管怎麼追，你跟我的距離總是維持不變。”<sup>16</sup>

“어느 광활한 들판에, 당신은 순백의 옷을 입고 그곳에 있었어요, 내가 부르면서, 당신에게 쫓아 갔어요.

(중략)

“정말 알수가 없어. 마치 북구의 신화와 지상으로 떨어진 것 같이. 아무리 쫓아도, 당신과 나의 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林春生은 喜美子를 아무리 쫓아가도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음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못할 곳에 있는 것이다. 喜美子の 나타남은 환상일뿐, 속임수일뿐, 진정한 현실적인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임을 의식하게 된다.

美麗的女人畢竟不會留到最後。(中略)他剎時恍然大悟。至少當時他是這麼想：那是騙局。<sup>17</sup>

아름다운 여인은 필경 최후까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중략) 그는 그때 깨달았다. 적어도 당시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은 속임수이라고.

그래서 이처럼 주인공은 자신이 동경과의 유대관계를 모색하는 과정

<sup>15</sup> 정문길, 앞의 책, 158-167 쪽.

<sup>16</sup> 翁鬧著(1990), 張恆豪編, 앞의 책, 119 쪽.

<sup>17</sup> 翁鬧著(1990), 張恆豪編, 위의 책, 121 쪽.

에서 생성된 동경은 단지 허상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林春生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의 불안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4. 인물의 소외 극복 양상

李箱이 「지주회시」와 翁關의 「殘雪」이 두 작품은, 1930년대 같은 일제의 식민지 지식분자들이 현실적 모순에 갈등을 느끼는 고통을 표현하여 자아를 확인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李箱의 「지주회시」의 주인공인 ‘나’는 당시 사회체계의 모순인 ‘돈’의 가치가 일상 속에 보다 깊이 침투하여 인간적 유대가 소멸되며 개인은 환경(사회체제)의 모순에 맞설 수 있는 인간관계의 근기를 상실함으로써 주객 단절(소외)를 경험한다. 「지주회시」에서는 이러한 허위와 모순에 찬 식민지 상황에 대한 고백과 자아 회복의 필요성을 표현한다면, 翁關의 「殘雪」속 林春生은 “인간이 자아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일차적인 연대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개별화를 촉진하며 외부적인 속박으로부터는 해방되었으나, 일차적인 유대의 상실에 의해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의혹과 회의를 품게 됨으로써, 또 다른 고독에 빠지게 됨을 표현하였다.” 양자 모두 불합리한 사회체제로부터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 현실체제에 대한 부정과 불신의 자세에서 출발하며, 기존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표현한다. 다음은 「지주회시」와 「殘雪」 두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 인물이 이러한 부정과 불신의 혼란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자.

##### 가. 초월적 극기-「지주회시」

먼저 「지주회시」에서 크리스마스날 오후 수업을 꺾으라는 카페여급 아내의 말을 따라 집을 나서는 주인공인 ‘나’는 ‘吳君’을 만난다.

주인공 ‘나’와 ‘吳균’의 관계는 예전에 10년을 동고동락을 같이 한 지기이지만 현실에서는 대립된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 곁에서 축음기가 깨끗이 울렸다. 두루마기처럼 기다란 털외투——

기름바른머리———금시제———보석박힌넥타이핀———이런 모든 것의 차림차림이 한없이 그의 눈           에 거슬렸다.           어찌다가 저지정이 되었을           까,           아니 내야말로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돈이 있다) 사람을 죽였단다.           다 털어 먹은 후에는 볼품 좋게 여비를 주어서 쫓는 것이었다.<sup>18</sup>

중략

자네 도공연히 꾸물꾸물하지 말고 청춘을 이렇게 대우하라는 것이었다. {거침 없는 뱃 이야기} 어찌다가 아니———어찌다가 나는 이렇게 훨씬 물러났고 말았 나를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모든 이런 뱃의 저속한 큰 소리가 땀탕 거짓말 같기도 하였으나 또 아니 부러워 할래야 아니 부러워 할 수 없는 형언 안 되는 것이 확실히 있는 것도 같았다.<sup>19</sup>

위의 예문을 통해 주인공 ‘나’는, 돈의 쾌락과 가치를 자랑하는 세속적인 ‘吳균’에 대해 경멸감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지식인인 자신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찾지 못하며 아내에게 기식할 수 밖에 없는 스승에게 자괴감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吳균’이 부러우면서 혼란스러워한다. 이러한 혼란 속에 ‘나’는 아내가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건을 계기로 갈등을 마감한다.

아내는 층계에서 굴러 떨어졌다. 난 왜 그렇게 배배 말랐니———아야아야노세요 말씀해 봐야아아야노세요. (눈물이 펄펄 뿜어져) 당신은 왜 그렇게 양돼지 모양으로 살이 쪼들소요———뭐이, 양돼지?———양돼지가 아니고———에이 발칙한 것. 그래서 발길로 채였고 채어서는 층계에서 굴러 떨어졌고 굴러 떨어졌으니 분하고———모두 분하다.<sup>20</sup>

아내가 양돼지 모양으로 살이 쪼들었다는 말대꾸에 화가난 A취인진 전무의 발에 치이 층계에서 굴러 떨어진 아내는 화해금으로 20원을 들고 돌아왔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모든 인간관계와 인간적 가치를 돈의

<sup>18</sup> 김유식 편(1991), 앞의 책, 302 쪽.

<sup>19</sup> 同上

<sup>20</sup> 김유식 편(1991), 앞의 책, 309 쪽.



견지에서 이용하고 돈으로 환산하는 도덕적 타락한 가치가 지배하는 세계, 모순된 세계를 직시하며 모든 관계를 끊는다.

노한축수-----마유미-----뭇의자상있는제집-----꼬나물-----허전한것-  
 ----수단은없다. 손에 쥐인 20원-----마유미-----10원은술먹고10원은팁으  
 로주고그래서마유미가 응하지않거든 예이 양돼지라고그래버리지. 그래도그만  
 이라면 20원은그냥날아가 -----헛되다-----그러나어떠냐공돈이아니냐. 전  
 무는한번더아내를층계에서굴러 떨어뜨려주려무냐. 또 20원이다. 10원은술값 1  
 원은팁. 그래도마유미가응하지않거든 양돼지라고그래주고 그래도그만이면 20  
 원은그냥뜨는것이다부탁이다. 아내야 또한번전무위에다대이고 양돼지 그래라.  
 걸어차거든두말 말고층계에서내리굴러라.<sup>21</sup>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가 인간성을 왜곡하고 타락시키고 있는 외부사  
 회에 대하여 주인공은 반격을 가한다. 주인공은 아내의 화해금 20 원을  
 들고 뭇의 여자 친구인 마유미를 찾아간다. 10 원을 마유미에게 팁으로  
 주고 아내가 다시 전무에 발길에 걸어차여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이러한 1930 년대의 식민지 현실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를 ‘돼지’群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단절된 삶이나  
 돼지에게 기생하며 사는 자는 ‘거미’群으로 묘사하고 있다. ‘거미’群에  
 속하는 인물로 주인공 ‘나’, ‘뭇’군의 여자친구 마유미가 있으며, ‘돼지’  
 群으로 아내, ‘뭇’군, R 화관 똥똥보 사장을 들 수 있다. 인간의 가치를  
 사물화한 현실 세계에 반격하는 것이다. ‘뭇군’과 여갑 마유미간의 현  
 실적인 이해 관계뿐인 남녀 관계, A 취인점 전무 그리고 R 카페 똥똥보  
 사장 등의 세속적이고 인간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비뚤어진 가치  
 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sup>21</sup> 김윤식 편(1991), 위의 책, 313-314 쪽.

침침이덧문을닫고앉는소리없는방안에서이번에는정말——재발될수있는데로아  
내는오래걸려서이따가저녁때나되거든돌아왔으면그러든지——경우에따라서는  
아내가아주가버리기를바라기조차하였다. 두다리를뚝뻗고깊이깊이잠이좀들어보  
고싶었다.<sup>22</sup>

바로 위의 예문은 주인공이 아내에게 기식하는 생활로부터 탈출하고  
자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기존의 모든 체제로부터  
모든 인연을 끊으며 자유롭게 된다. ‘나’는 적극적으로 현실체제를 부정  
하는 데 성공하며 완전한 부정에서 철저한 파괴로 나아간다. 주인공은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자 노력하며 마침내 현실체제의 장벽을 부수며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나. 새로운 삶의 추구-「잔설(殘雪)」

「殘雪」의 주인공 林春生은 대만에서 동경으로 건너 간 유학생으로, 원  
초적‘집단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해 1 차적 유대관계(대만)과의 공동체  
의식을 상실해 버린 상황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나 2 차적 유대관계(동경)  
의 환상적인 이미지에 매혹되나 동시 동경에 대해 불안감과 불신감을  
느낀다.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일체감을 갖기  
도 어려운 상황에서 林春生은 北海道에서 온 ‘喜美子’와 대만에 있는  
옛연인 ‘陳玉枝’ 중에 어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며 공허감을  
느낀다. 즉, 두 상반된 관계 속에서 방황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심한  
갈등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한다.

① 我有個野心，想在二十五歲時組織劇團，回台灣做點事，能不能成功，雖然很值得懷疑，但我想試試看。<sup>23</sup>

<sup>22</sup> 김윤식 편(1991), 앞의 책, 313-314 쪽.

<sup>23</sup> 翁鬧著(, 1990), 張恆豪編, 앞의 책, 131 쪽.

나에게 야망이 있는데, 그것은 25 세 이전에 나의 극단을 조직하여, 고향 深淵으로 돌아가 꿈을 펼쳐 보는 것이요. 성공할지 잘 모르겠고, 그것이 참으로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시도해 보고자 하오.”

② 我不要回去, 我想一個人獨自生活.<sup>24</sup>

“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서 살고 싶어요.

위의 예문①에서 주인공의 야심에 찬 고향의 장래에 희망과 예문②에서 현실상의 동경에 대한 미련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 林春生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어한다. 동경에서 살고 싶어한다. 이러한 자신의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망설인다. 심지어 돌아가기 싫은데, 집에서 재촉할 때나 강물에 뛰어들자 할까 하는 충동마저 휩싸인다..

兩個人行至數寄屋橋, 每次走到這裡, 林總是習慣地依在橋欄杆上望一下深淵般的河水. 今晚, 林卻沒有這個念頭, 因為羅馬競技場四的大劇場已經關閉, 卻仁然讓人窺視黑漆漆的窗口. 這時, 高架鐵路上, 電車從左右同時開來, 彷彿在鐵橋上相撞一般.<sup>25</sup>

두사람은 數寄屋 다리까지 걸었다. 매번 여기까지 걸을 때마다, 林은 항상 습관적으로 다리 欄杆에 기대어서 深淵과 같은 강물을 바라다 본다. 오늘밤, 林은 그런 상념이 없었다. 왜냐하면 흡사 로마경기장과 같은 대극장의 문은 이미 닫혔으나, 여전히 사람으로 하여금 어둡고 침침한 창을 엿보는 것과 같았다. 이때, 철도에서, 전차가 좌우로부터 동시에 달려왔다. 마치 철교위에서 충돌할것 같이

그러다 「殘雪」의 주인공 林春生도 역시 「지주회시」의 주인공처럼

<sup>24</sup> 翁鬧著(, 1990), 張恆豪編, 위의 책, 129 쪽.

<sup>25</sup> 翁鬧著(, 1990), 張恆豪編, 앞의 책, 130 쪽.

결국 소의 극복을 위해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北海道 喜美子和 고향 陳玉枝, 두 여인과 자신의 현실적 거리감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林突然想往北海道一行, 男子自然地向他表明自己的心, 這想必就是喜美子所謂的幸福機會吧? 但, 那個玉枝-她現在可能鬱鬱地在農舍屋簷下哭泣, 突然想起了一個奇妙的念頭: 北海道和台灣, 究竟哪個地方遠? 他記得在地圖上北海道比較近, 但他發覺在內心這兩個地方都同樣遠. 住在那裏的玉枝和喜美子似乎跟自己遙遙相隔.

26.

林은 갑자기 北海道로 가고 싶었다. 남자답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필히 喜美子が 말하는 소위 행복의 기회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 玉枝는 그녀는 지금 아마도 우울한 農舍 지붕 밑에서 울고 있을 것이다. 그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 올랐다. 北海道와 臺灣, 과연 어느 쪽이 더 먼 것인지? 그의 기억속에 지리상으로 北海道가 가까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두 곳 모두 먼 거리였다. 玉枝와 喜美子 둘다 자신과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만 같았다.

주인공은 마음 속 깊이 고향에 대한 향수, 포부가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비록 몸은 동경에 있으나, 그것을 자기와는 절대적인 거리감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 그는 자신의 틀을 깨며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昨晚下的雪, 可能也是今年最後一次下的殘雪, 從頭上的屋頂滑落到眼前的地面, 接著又慢慢疊合在一起.<sup>27</sup>

밤에는 또 자주 눈이 내렸다. 눈이 내린 후 다음날 아침에, 하늘은 파랗색과 같이 깨끗하였다. 태양은 모든 지붕을 밝게 비추었다. 눈이 녹는 소리는, 쇠 철 지붕에서 눈이 굴러 내리는 소리는, 임에게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sup>26</sup> 翁鬧著(, 1990), 張極豪編, 앞의 책, 135 쪽.

<sup>27</sup> 翁鬧著(, 1990), 張極豪編, 위의 책, 135 쪽.

것이다.

하얀 눈(雪)은 작가의 마음 속 갈등이 해소됐다는 암시의 상징이다. 특히 3 월의 눈은 세bum을 맞이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듯이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고 있다.

## 5. 나오며

이상으로 본 논문은 1930 년대 한국과 대만 당대 식민지 현실사회에서 인간 소외의 문제에 최초로 집중한 한국의 李箱과 대만의 翁關 두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李箱의 「지주회시」와 翁關의 「殘雪」 두 작품에서 나타난 인물들이 직면한 현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갈등을 겪으며 소외를 느끼는지, 그리고 그들의 극복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李箱의 「지주회시」는 주인공이 아내로부터 기식하는 생활로부터 탈출하고자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모든 인연을 끊으며 기존의 모든 체제로부터 자유롭게 거듭 나게 된다. 그런 ‘나’는 적극적으로 현실체제를 부정하는 데 성공하며 완전한 부정에서 철저한 파괴로 나아간다. 주인공은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자 노력하며 마침내 현실체제의 장벽을 부수며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翁關의 「殘雪」의 경우, 주인공 마음 속 깊이 고향에 대한 향수, 포부가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외를 극복하려 한다. 비록 몸은 동경에 있으나, 그것을 자기와는 절대적 거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면서 주인공 林春生은 자신의 틀을 깨며 갈등을 해소한 것이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주인공들은 불합리한 사회체제로부터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 과정에서 현신을 잇고 있는 모든

갈등으로부터 관계를 끊으며, 새로운 자신의 가치관을 구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1. 기본 자료

김윤식 편(1991), 『李箱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翁鬧著(, 1990), 張恆豪編, 『翁鬧, 巫永福, 王昶雄合集』, 前衛出版社.

### 2. 연구 논저

강상희(1999), 『한국 모더니즘 소설론』, 문예출판사.

고은(1974), 「李箱평전」, 민음사.

김연신(2001), 『대만의 역사』, 지영사.

김윤식(1987),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김윤식(1988), 『이상 소설 연구』, 문학과 비평사.

김윤식(1998),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서울대출판부.

김용직(1988), 「1930년대 한국시와 비평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형성진  
개」, 비교문학 13집.

김학동(2004), 『比較文學』, 새문사.

권영민(1998),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사상사.

남원진(1997), 『한국현대작가연구』, 박이정.

신동욱 편(1997), 『文藝批評論』, 고려원.

이승훈(1997), 「李箱」, 건국대학교출판부.

정문길(1978), 『疏外論研究』, 문학과 지성사.

최혜실(1992), 『한국모더니즘小說研究』, 문지사.

葉石濤(1987), 『台灣文學史綱』, 文學界雜誌.

- 楊逸舟(1985),「憶夭折的俊才翁鬧」,《台灣文藝》,vol. 95.
- 陳藻香,許俊雅編譯(1997),『翁鬧作品選集,彰化:彰化縣立文化中心編印』.
- 施淑(1996),『日據時代台灣小說選』,台北:前衛出版社.
- 古繼堂(1996),『台灣小說發展史』,台北:文史哲出版社.
- 杉森藍(2007),「翁鬧生平及新出土作品研究」,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投稿截止日:2016年 9月15日  
審查刊登日:2016年11月15日